

## 2. 신입생의 실태조사 (1971학년도)

고 명 규  
강 병 찬

.....목	차.....
I. 조사목적	
II. 연구방법 및 절차	
III. 결과 및 해석	
IV. 논 의	
V. 결 론	

### I. 조사 목적

본 학생지도연구소에서는 매년 학생지도 활동의 일환으로 입학초 Orientation 기간중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비롯하여 각종 심리검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여러가지 현상을 조사하여 학생지도를 위한 제반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본 조사목적도 신입생들의 제반상황을 파악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대학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토록 도움을 주고, 또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앞으로의 대학생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예견하여 보다 학생지도를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로 삼기 위함은 물론 나아가서 학교당국에 대한 느낌, 요망등을 알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개선점과 새로운 좌표를 모색하여 보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조사에 사용한 방법은 질문지 방법으로서, 본 대학 1971년도 신입생 전원 180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44명이 조사대상이 되었다.

표집의 구성내용은 다음 <표-A>와 같다.

#### (2) 조사일 및 그 처리시일

조사일자; 1971년 3월 11일

조사결과 처리일자; 1971년 8월 20~25일

<표A> 질문지 표집의 구성내용

부별 ↓	구분→ 과별↓	신입생수	피조사자수	%
법문학부	법	15	11	80.6
	경 영	14	12	
	국 문	15	14	
	영 교	20	23	
	수 교	28	15	
계		92	75	
농 학 부	농	7	7	84.2
	원 예	7	7	
	축 산	2		
	수 의	2	1	
	가 정	1	1	
계		19	16	
수산학부	어 로	30	28	76.7
	제 조	20	11	
	중 식	19	14	
	계	69	53	
전 체		180	144	80.0

있고, 학부별, 전체적인 경향을 보았다.

### Ⅲ. 결과 및 해석

#### 1. 대학입학에 관한 동기문제

어려운 경쟁을 거쳐 본 대학에 입학한 동기의 문제에 대한 신입생들의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1-1> 대학에 입학한 동기

내용 ↓	학부별→			전 체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학문 연구를 위하여	26.7	25.0	8.7	20.1
지성인으로서 인격을 갖추기 위하여	16.0	19.3	15.1	15.9
국가발전에 공헌할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18.7	25.0	26.4	22.2
장래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를 위하여	26.7	19.3	39.6	30.5
기 타	10.7	6.2	5.7	8.3
무 응 답	1.3	6.2	3.7	2.7
계	75	16	53	144

학부별로 보면, 학부의 성격에 따라 약간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수산학부에서 특히

#### (3) 조사 내용

본 조사의 문제 영역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대학에 입학한 동기문제
2. 학과선택에 관한 문제
3. 전과에 관한 문제
4. 가장 절실한 개인문제
5. 과외활동에 관한 문제
6. 아르바이트에 관한 문제
7. 통학에 관한 문제
8. 장래의 직업 문제
9.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와 장래문제
10. 본 대학에 대한 요망사항

이상 10개 영역에 걸친 문제를 중심으로 20개의 문항을 제시했다.

#### (4) 처리방법

백분율(%) 통계방법에 의해 모두 처리되

<표1-1>에 의해서 전체적인 반응경향을 보면, 장래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가 30.5%로 제일 많고, 다음이 국가 발전에 공헌할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가 22.2%, 학문연구를 위하여서가 20.1% 순위이다. 대체로 장래 직업생활의 준비, 국가발전에 공헌할 지도자, 학문연구등이 입학동기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양상이다.

장래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39.6%)를 위하여 입학했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법문학부의 학문연구를 위하여서가 약 14의 학생 (26.7%)이 반응한 점은 학부의 성격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경향에서 미루어 볼 때, 졸업후 직업생활이 크게 관심의 대상이 된 나머지, 전문적인 학술연구를 위한 대학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약간 소외되고 있음을 보겠다.

## 2. 학과선택에 관한 문제

학과선택에 관한 문제로서는 학과의 선택기준과 학과지망 관계(1,2지망관계), 학과선택시의 조언유무, 학과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준 조언자, 입학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1) 학과의 선택기준에 대한 신입생의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1>에 의한 학과선택의 기준을 전체적으로 보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경향이 가장 높은 반응 (35.4%)을 보였고, 다음은 장래의 직업선택 (22.9%)이 학과선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보였고, 미개척 분야 (13.2%), 본인의 가정환경과 경제상태 (9.0%), 부모의 권유 (1.4%)에 의한 학과선택의 동기도 나타나고 있다.

<표2-1> 학과선택의 기준

내용	학부별				전체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체	
적성 및 흥미	44.0	43.8	20.8	35.4	
가정환경 및 경제상태	5.3	6.2	15.1	9.0	
장래의 직업선택	26.7		24.5	22.9	
고교성적(실력)	1.3		3.8	2.1	
부모의 권유	1.3		1.9	1.4	
미개척 분야	2.6	12.4	28.3	13.2	
무 반응	18.7	37.5	5.7	15.9	
계	75	16	53	144	

학부별로 보면 개인의 적성과 흥미의 고려가 크게 중시하여 들어 온 학부는 4학이 상인 법문학부와 농학부로서 거의 같은 비율인 각각 44.0%, 43.8%이다. 수산학부에서는 미개척분야의 학문이라는 점 (28.3%)을 고려한 것으로 보아, 발달도상국에 있어서의 수산업전망이 학과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겠다.

대체로 대학의 특성에 따라 다소 선택동기가 다르나, 본인들의 적성, 흥미, 학문의 실용성등이 비교적 많이 고려되는 경향이다. 그런데, 학과선택이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선택되어 완전히 타의에 의한 결정이라면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문제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라 보겠고, 가정환경과 경제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하게 된 경우들도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성을 지닐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수산학부가 높다.

(2) 입학당시 학과지망 관계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2>에 의해서 학과지망관계를 보면, 12주 50%가 2지망의 입학이고, 약 4학만의 학생들이 1지망의 입학이 되는 셈인데, 1지망의 학생과 2지망의 학생수의 차이는 약 8%에 지나지 않는다.

<표2-2> 학과지망 관계

학부별 내용 ↓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1 지 망	54.7	25.0	30.1	42.4
2 지 망	38.7	68.8	60.4	50.0
무 응 답	6.7	6.2	8.7	7.6
계	75	16	53	144

<표2-3> 학과선택시의 조언유무

학부별 내용 ↓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조 언 을 받 다	36.0	43.8	35.8	36.8
조 언 을 받 지 않 았 다	64.0	56.2	64.2	63.2
계	75	16	53	144

한반응의 결과는 다음 <표2-3>과 같다.

이에 의해서 보면 6할 이상의 학생들이 학과를 선택할 때 자기자신의 결정하고 있으나 농학부(43.8%)만이 타인의 조언을 받은 학생이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그러면, 학과를 선택할 때 타인의 조언을 받은 학생들은 누구의 조언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를 본 것이 다음<표2-4>이다.

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학과선택시 조언은 주로 첫째, 가족원(45.3%), 둘째, 고교교사(20.8%), 셋째, 친구(16.9%)의 순위이다.

<표2-4> 학과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준 조언자

학부별 내용 ↓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가 족 원	51.9	50.0	35.0	45.3
고 교 교 사	14.8	33.3	25.0	20.8
친 처	7.4		5.0	5.6
친 우	11.1		30.0	16.9
기 타	14.8	16.6	5.0	11.3
계	27	6	20	53

<표2-5> 입학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학부별 내용 ↓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만족한 편이다	37.3	12.4	47.2	38.2
그저그렇다	49.3	62.5	43.4	48.6
불만스럽다	12.0	25.0	5.7	11.1
무 응 답	1.3		3.8	2.1
계	75	16	53	144

학부별로 보면 1지망은 법문학부가(54.7%) 높은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2지망은 농학부(68.8%), 수산학부(60.4%)가 높은 반응을 보인다.

본 대학은 후기라서 전기에 합격되지 못한 학생들이 2지망하여 들어오는데, 그수는 과반수로 많다. 이런 경우 앞으로 이들이 대학생활을 해나가는데 학과적응 문제가 크게 문제시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기할 수 있는 문제 이는

(3) 이들 신입생들은 학과선택시에 다른 사람의 조언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에 대

학부별로 보면 가족원의 영향인 경우, 법문학부와 농학부는 같은 비율인 각각 51.9%, 50%로서 수산학부(35.0%)보다 높은 경향이고, 고교교사의 경우 농학부(33.3%)가 다학부보다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 친구의 영향은 수산학부가 30%로서 다 학부보다 현저한 모습을 띄고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5) 입학한 학과에 대하여 신입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만족도에 대한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5>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한 편이 38.2%, 불만스럽다가 11.1%이

다. 무관심, 방관적인태도가 약 50%로서 제일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학부별로 보면 만족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수산학부 (47.2%)이며, 다음이 법문학부 (37.3%)이다. 반면, 불만인 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만족한 학생이 가장 적은 농학부로서 25.0%이다, 불만인 학생이 가장 적은 학부는 만족해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산학부 (5.7%), 법문학부 (12.0%)이다.

이로 미루어보아, 무관심, 방관적인 학생과 불만을 느끼는 학생은 전체의 약 3/5에 해당하는 60%로서, 이들에 대한 학교 및 학과직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될 것이다.

### 3. 전과에 관한 문제

여기에서는 여건이 허용하면 전과(학)를 하려하는가? 또 전과(학)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1) 전과여부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1> 전과(전학) 여부

내용 ↓	학부별 →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체
하겠다		42.7	62.5	37.7	43.1
하지 않겠다		26.7	18.8	45.3	32.6
생각한바 없다		30.7	18.8	17.0	24.3
계		75	16	53	144

<표3-1>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4할이상의 학생들이 전과(학)를 희망하고 있다. 앞의 <표2-5>에서 입학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서 무관심과 불만이 약 6할정도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아, 학과 부적응문제에서 오는 전과문제는 소중히 논의 될 문제거리라고 볼 수 있다.

대학별로 보면 전과(학) 희망 학생이 농학부가 가장 많아 6할이상에 이르고, 타 학부는 4할내외이다.

(2) 그러면, 전과(학)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3-2> 전과(전학)하려는 이유

내용 ↓	학부별 →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		46.0	60	60	53.2
졸업후 실용성이 적기 때문에		18.8	10	5.0	12.9
교수진이 불만이기 때문		6.3			3.2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15.7	20	10.0	14.5
좁은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6.3		5.0	4.9
객지라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3.1	10	15.0	8.1
부모의 권유 때문에		3.1		5.0	3.2
계		32	10	20	62

전과하겠다는 약 4할정도에 해당하는 62명에 대해서 그 이유의 반응을 본것이 <표3-2>인데, 이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그 이유를 보면 첫째,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 (53.2%), 둘째, 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14.5%), 셋째, 졸업후 실용성이 적기 때문에 (12.9%) 라고 볼 수 있다.

학부별로 보면 농학부가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60%로 수산학부와 같고, 법문학부에서는 졸업후 실용성이 적기때문에 18.8%, 시설의 빈약에서 15.7%로 높고, 수산학부에서는 흥미와 적성에서 60%, 객지라서 경제적부담이 크다에서 15%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와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학과를 선택할 때는 항상 개인의 소질을 크게 개발할 수 있는 흥미와 적성등을 중시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학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졸업후의 전망도 크게 생각하여야 되겠다는 점이 강조되는 바이다.

#### 4. 가장 절실한 개인문제

이 문제에서는 최근 학생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들의 양상과, 그 어려운문제를 누구와 상의하고 싶은가, 고등학교 때의 상담경험등을 그 내용으로 포함시켜보았다.

(1) 신입생들의 절실한 문제를 11개의 범주에서 3개를 선택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1> 가장 절실한 개인문제

내용 ↓	학부별 →				전 체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건강문제	10.8	6.1	3.5	7.7	
경제문제	21.2	12.2	18.4	19.2	
병역문제	5.6	16.3	9.2	8.2	
성격문제	8.0	12.2	9.2	8.9	
인간관계	8.0	8.2	4.3	6.7	
가정문제	6.1	4.1	13.5	8.5	
장래 직업문제	16.9	14.3	14.9	15.9	
학교생활 적응문제	8.0	12.2	9.2	8.9	
이성, 결혼문제	2.3	2.0	2.1	2.2	
여가선용문제	5.2	8.2	10.6	7.5	
도덕 및 종교문제	2.8	2.0	2.1	2.5	
기 타	4.7	2.0	2.8	3.7	
계	212	48	141	402	

현재 가장 절실하게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표4-1>에서 보면, 가장 절실하고 있는 문제의 순위를 전체적으로 몇개의 영역을 보면 첫째, 경제문제 (19.2%), 둘째, 장래 직업문제 (15.9%), 셋째, 병역, 성격, 가정, 학교생활 적응문제가 각각 8% 이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학부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는데, 법문학부는 첫째, 경제 문제 (21.2%), 둘째, 장래 직업문제 (16.9%), 셋째, 건강문제 (10.8%)의 순으로 그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

농학부는 첫째, 병역문제(16.3%), 둘째, 장래 직업문제 (14.3%), 셋째, 경제, 성격, 학교생활 적응문제 (12.2%)의 순으로 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수산학부는 법문학부와 비슷하나 법문학부의 세번째 순위의 건강문제 보다는 가정문제가 더 절실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학에 따라 문제의 방향이나 농도가 약간씩 다른 모습들을 참작하여, 그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해결해줌으로써 보다 명량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겠다.

<표4-2> 개인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대상

학부별→ 내용↓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부	1.3	6.2		1.4
모	1.3	12.4	3.8	3.5
형	10.6	12.4	8.7	10.4
누나	2.6	18.8	3.8	4.9
친우	36.0	37.5	26.4	33.3
학우	1.3			0.7
지도교수	16.0	6.2	11.3	13.2
학교상담실	5.3	6.2	8.7	6.9
기타	2.6		5.7	3.5
무 반응	22.7		30.4	22.9
계	75	16	53	144

(2) 그러면, 그 어려운 문제를 누구와 상의 하고 싶은가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들의 복잡한 문제가 생길때 마음 놓고 상의하고 싶은 대상들을 <표4-2>에서 보면, 친우가 3할정도로서 가장 많이 택하고, 다음이 지도교수 그 다음이 형제들 간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가장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은 같은 연령층의 친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학교에서는 학년 담당지도교수, 가족간에는 같은 동

성끼리 보다 가까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상담실은 약 7%로서, 카운슬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서 미루어 보아, 학생지도연구소의 PR은 물론, 학년담당 지도교수제가 더욱 강화되어 개인적인 접촉에서 그들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줄 때 보람있는 대학생활이 기대되리라 본다.

(3) 그러면, 고등학교때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교상담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냐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4-3> 학교상담실을 이용한 경험유무

학부별→ 내용↓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한번 있다	6.6		13.2	8.3
두 세번 있다	16.0	6.2	8.7	12.5
여러번 있다	2.6	6.2	7.6	4.9
전혀 없다	69.3	81.3	64.2	72.2
무 응 답	5.3	6.2	5.7	2.1
계	75	16	53	144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진학문제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문제들과 종종 부딪쳐, 이런 경우 카운슬러와의 상담경험의 유무를 본것이 <표4-3>이다. 이에 의하면 72.2%의 학생들이 상담경험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러한 경향은 앞의 <표4-2>에서 약 7%의 학생들이 카운슬러와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고

학반응의 결과와 종합해 보면, 학생들이 카운슬러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반면, 고등학교에서 입시준비에만 몰두한 나머지 상담지도 활동이 부진한 상태에서도 그 원인이 있다고도 추찰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카운슬러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좋은 학생지도를 위하여 학생, 카운슬러가 상호협조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겠다.

5. 과외활동에 관한 문제

이 문제영역에서는 친구들과의 그룹활동 상황, 앞으로 그룹활동의 참가범위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포함시켰다.

(1) 그룹활동의 참가여부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5-1> 그룹활동 참가여부

내용↓	학부별→			전 체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교내에서 활동한다		6.2	1.9	1.4
교외에서 활동한다	36.0	25.0	22.6	29.9
활동하지 않고 있다	58.7	68.8	71.7	64.6
무 응 답	5.3		3.8	4.2
계	75	16	53	144

신입생들의 그룹활동 참여도를 <표5-1>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약 1/3정도의 학생들이 그룹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약 2/3에 해당하는 64.6%의 학생들은 그룹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학별로 볼 때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법문학부 (36.0%) 와농학부 (31.2%) 는 다른 학부보다 약간 활발함을 볼 수 있지만, 수산학부에서는 약간 다른 학부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대학별로 볼 때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법문학부 (36.0%) 와농학부 (31.2%) 는 다른 학부보다 약간 활발함을 볼 수 있지만, 수산학부에서는 약간 다른 학부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입시공부로 빈틈없이 짜여진 고교생활에서 여유있는 대학생살로 바뀌어진 이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과외활동을 하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내면적인 성장, 개성의 발휘, 윤택한 대학생살을 꾸며 나가는 데 좋은 활력소가 되리라 본다.

<표5-2> 앞으로 그룹활동의 범위

내용↓	학부별→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학술 연구	29.3	18.8	13.2	22.2
사회 봉사	13.3	18.8	9.4	12.5
종교 활동	5.3	12.4	16.9	10.4
음악 활동	17.3	6.2	3.8	11.1
미술 활동	2.6		1.9	2.1
체육 활동	2.6	18.8	3.8	4.9
단순한 친목	10.6	12.4	18.9	13.9
취미 활동	17.3	12.4	24.5	19.4
기 타	1.3		7.5	3.4
계	75	16	53	144

(2) 만일 앞으로 그룹활동을 한다면 어느 그룹에서 활동하려는가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입학한지가 오래지 않은 신입생들의 교외 그룹활동은 대부분이 고교시절의 연장이라 보겠는데, 이들에게나 아직 활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앞으로 참가할 그룹활동의 범위를 <표5-2>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주로 학술연구 (22.2%) 에 비교적 많은 참여의식을 갖고 있고, 다음은 취미활동 (19.4%), 단순한친목 (13.9%), 사회봉사 (12.5%),

음악활동 (11.1%), 종교활동 (10.4%) 의 순위로 활동영역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별로 보면 법문학부는 보다 학술연구 (29.3%), 음악활동, 취미활동 (17.3%) 에 참여의식을 나타내고 있고, 농학부는 체육활동, 사회봉사, 학술연구 (18.8%) 에, 수산학부는 취미활동 (24.5%), 단순한 친목 (18.9%), 종교활동 (16.9%) 에 보다 많은 참여의식을 갖고 있어, 대학별로 활동범위의 특성을 좀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봉사활동에도 다소 학생들이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

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학생들이 현실적이고 공리적이라는 비판과는 달리 학문연구와 함께 사회봉사를 즐겨하고 있는 그들의 건전한 정신적인 자원을 눈케 평가해 주어야 되겠다.

### 6. 통학에 관한 문제

현재 어디에서 통학하고 있는냐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6-1> 통학관계

학부별→ 내용↓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체
자기집	40.0	25.0	23.3	34.0
하숙집	10.7	25.0	26.4	18.1
자취	38.6	37.5	35.8	37.5
아르바이트	1.3			0.7
친족	5.3	12.4	3.8	5.6
기타	1.3		1.9	1.4
무응답	2.6		3.8	2.8
계	75	16	53	144

<표6-1>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취가 37.5%로 가장 많고, 다음이 자기집 34.0%, 하숙집이 18.1%이다. 학부별로 보면 법문학부는 자택과 자취는 거의 같은 비율로 40%에 이르고, 하숙이 10.7%이다. 농학부는 자취가 37.5%에 이르고, 자택, 하숙이 1.4에 해당하는 25%이고, 친족이 1할정도이다. 수산학부는 자취 (35.8%), 자택 (28.3%), 하숙 (26.4%)의 순위이다.

위에 나타난 사실에서 현재 본교 신입생 중 가정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제외한 학생들 약 60% 이상이 여러가지의 어려움과 또한 불안정하고 절제가 없는 생활에 빠지기 쉬운 학생들임을 알 수 있겠다.

### 7.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와 장애문제

이 문제에서는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및 우리나라의 장애가 나아질 것인가, 나아질 것이라면 어떤 점에서 그러할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포함시켰다.

(1) 신입생들의 사회참여 특히 정치적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의 반응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7-1>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

학부별→ 내용↓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54.7	68.8	73.6	61.8
이해가 가나 행동하고 싶지 않다	29.3	31.2	28.3	27.7
반대한다	4.0		3.8	2.8
잘 모르겠다	12.0		7.6	7.6
계	75	16	53	144

<표7-1>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에서 신입생들은 60%이상의 찬성을 하고 있으며, 전체의 2.8%의 학생들만이 무조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또 이해가 가나 행동하고 싶지 않다고 보고하는 학생수는 27.8%나 된다.

특히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학생이 많은 학부는 수산학부 (73.6%), 농학부 (68.8%) 법문학부 (54.7%)의 순위로서, 수산학부와 농학부가 법문학부 보다 약 15~20%가량 우



<표8-2>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

내용 ↓	학부별 ↓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22.7	14.1	25.5	22.7
잡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32.0	21.4	14.8	25.0
사회생활의 전문을 넓히기 위하여	17.0	21.4	21.2	19.1
여가활용을 위하여	1.3		2.1	1.4
직장생활의 경험을 갖기 위하여	5.3			2.9
자립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21.3	42.8	36.2	28.6
계	75	14	47	136

이에 대한 반응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8-2>에서와 같이 그들이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이유는 첫째, 자립정신을 기르겠다는 것 (28.6%), 둘째, 잡비를 마련하겠다는 것 (25.0%) 셋째, 학비를 마련하겠다는 것 (22.7%), 넷째, 사회생활의 전문을 넓히

기 위하여 (19.1%) 등이 비교적 뚜렷한 이유들이 되고 있다.

학부별로 보면 수산학부 (25.5%) 가 학비부담을 하기에 곤란한 학생이 약간 많고, 다음이 법문학부 (22.7%) 이다.

여기에서 이미 본 바와같이, 학비와 잡비마련을 위하여서가 전체의 약 50%에 이르고 있어, 학비를 부담하기에 어려운 경제조건이, 부직문제에 있어서도 경제환경 때문에 요구되는 주된 이유가 됨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소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대학생활

을 다양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적당한 부직들이 신입생들에게 적절히 알선되어야 되겠다.

<표9-1> 동경하는 직종

내용 ↓	학부별 ↓			
	법학부	농학부	수산부	전 체
정치인	1.6			0.9
행정관 (공무원)	17.2		5.4	11.4
법관	6.7	10		4.7
사업가 (경영주)	8.6		5.4	6.6
은행가	5.2			2.9
학자 (교수)	8.6	20	2.7	7.6
교사	17.2	30		12.4
의사 (의료원)	1.6		5.4	2.9
기술자	1.6		5.4	2.9
계리사	3.4			1.9
축산 (농장주)		20		1.9
언론인 (기자)	11.3	10		6.6
농업		10		0.9
외교관	5.2		2.7	3.8
실업가 (기업인)	5.2		5.4	4.7
회사원	1.6		5.4	2.9
항해사 (해운업)			59.4	21.8
비서관	1.6		2.7	1.9
경찰관 (형사)	3.4			1.9
계	58	10	37	105

### 9. 장래의 직업

대학 졸업후 어떠한 직업을 갖고 싶느냐에 대한 반응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졸업후 갖고져 하는 직종을 105명의 반응자에서 조사한 <표9-1>를 보면, 모두 19종의 직종에서 가장 동경의 대상이 되는 직종은 전체적으로 항해사가 21.8%로 나타났다고, 그 다음이 교사가 12.4%, 행정관이 11.4%, 교수와 7.6%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신입생들이 동경의 대상이 되지않는 직종으로 가장 낮은 반응을 보인 직종은 정치인, 농업이 (0.9%), 계리사, 축산, 비서

관, 경찰관 (1.9%)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법문학부는 행정관, 교사 (17.2%), 언론인 (11.3%), 그리고 사업가, 교수 (8.6%)의 순위로 나타났다. 농학부는 교사 (30%), 교수, 농장주 (20%)의 순으로 되어 있고, 수산학부는 항해사가 약 60%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학부의 특성에 따라 직종을 달리하고, 그 특성에 따른 직종을 동경하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직종별로 보면 법문학부가 그 동경하는 직종이 다른 학부보다 꽤 다양함을 알 수가 있다.

#### 10. 본대학에 대한 요망

아직 대학생생활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신입생들이 본 대학에 대한 요망사항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는데, 이를 크게 4영역에서 조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당국에 요망사항에 대한 반응은 41명이 기술해 주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구적 분위기 조성 (29.3%)

둘째, 운동장 정리와 체육시설 완비, 오락시설 완비 (12.2%)

셋째, 원양 실습선 증설 (9.7%)

넷째, 학생의사 반영, 교수진 확보 (7.3%)

다섯째, 졸업후 직장보장, 교내미화 정리 (4.9%)

여섯째, 전과 용이성, 학부통합, 공학부설치, 기관과 신설, 교내식당 신설 (2.4%)

(2) 시설 및 부속기관에 요망사항에 대한 반응은 26명이 기술해 주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첫째, 대학 캠퍼스 확충 및 시설확충 (57.6%)

둘째, School Bus 이용

셋째, 도서관 개관시간의 연장 및 장서확장 (19.2%)

(3) 교수에 대한 요망사항은 41명이 기술했는데, 그 결과는

첫째, 성의있는 지도와 충실한 강의 (41.5%)

둘째, 친숙한 유대관계 (26.9%)

셋째, 출강시간 엄수 (19.5%)

넷째, 전문분야의 연구활동 (12.2%)

(4) 학생활동에 대한 요망사항은 7명이 기술했는데,

첫째, 학생들의 과외활동 장려 (57.1%)

둘째, 아르바이트 알선 (42.9%)

이상과 같이 본 대학에 대한 요망사항이 무엇이냐를 4영역에서 살펴보면, Fresh Men들의 요망사항을 심분 고려하여 실망과 기대의 이긋나지 않도록 학교당국은 물론, 교수 모두가 총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 IV. 논 의

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몇가지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여 보고저 한다.

(1) 대학의 입학동기가 대체로 장래 직업생활에 대한 준비 (30.5%) 에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문교육으로서의 심오한 학술연구의 대학교육도 대단히 중요하나, 이와 아울러 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직업 전망하에 졸업후의 실용성을 크게 고려한 교육이념이 새로히 모색되고 실천되어야 될 줄 안다.

(2) 학과선택의 기준이 본인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추어 선택한 경우 (35.4%) 도 많으나, 이 보다 장래의 직업선택 (22.9%), 미개척 분야 (13.2%) 라는 점을 고려해서 현 학과에 입학하게된 경우도 상당수다. 다행히 능력에 알맞고 흥미와 적성과 알맞는다면 별 문제거리가 되지 않지만,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본인의 흥미나 적성에 맞지 않아서, 혹은 일정한도까지의 학업성적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전과문제 또는 대학생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여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인한 개인의 희생이 없도록 대학당국의 실제적인 연구와 지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대학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할 수 있다.

특히 본 대학이 후기의 학생을 선발하는 이상 (급년도 2지방 50%) 개인의 흥미와 적성문제가 크게 고려 되지 않는다면, 본인을 위하여서나 혹은 대학자체를 위하여서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대학입학을 할 때 학과선택에 있어서 타인의 조언을 받아 결정한 경우 (36.8%) 도 있으나, 조언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한 반응경향이 6할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가족원이나 혹은 고교교사등 타인의 조언을 받지않고 결정하는 경향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일일는지 모르겠으나, 좀 더 학과선택에 심중한 고려를 한다면, 타인의 조언을 참고하는 태도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타인의 결정적 영향력이나 혹은 파영기대는 배제되어야 하겠지만, 미숙한 신입생들이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진로의 선택에 있어서 신중성을 경여한 학과선택의 경향도 적극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신입생들의 입학한 학과에 대한 태도로서, 만족한 경우 (38.2%) 도 있지만, 무관심, 방관적인 태도와 더불어 불만을 표시하는 학생이 전체의 약 50%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보다 심층적인 고찰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기

대하지만, 자기가 지망하여 입학한 학과에 대하여 신입초 몇일만에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여 보아야 할 중대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교당국에서도 불만을 표하는 신입생들의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보다 깊은 배려와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리라고 본다.

(5) 학생들의 전과 혹은 전학의 희망이다. 자기가 입학하여 그 학과의 소정의 전공과목에 접해 보기도 전에, 벌써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전과(학)의 희망을 표시하고 있음은 다시 한번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 신입생의 4할 이상이 흥미와 적성에 맞지 않아서(알맞는 학과 없음도 포함) (53.2%), 시설빈약 (14.5%), 실용성희박 (12.9%)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전과제도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법이 모색이 필요함은 물론, 어떤 적극적인 제도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6) 신입생들이 처해있는 절실한 문제의 경향이다. 학생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문제는 첫째, 경제적 문제 (19.2%), 둘째, 장래 직업문제 (15.9%), 셋째, 성격, 학교생활 적응문제 (8.9%)의 순위로, 이들 문제가 다른 문제들보다 비교적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고 싶은 대상은 친구 (33.3%)나 지도교수 (13.2%), 형제 (10.4%)가 많고, 학교상담실 (6.9%), 부모 (4.9%)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현상은 같은 연령층에서 비슷한 문제에 부딪칠 수 있는 친구들과 문제를 상의하기가 편리하고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기에 문에 비교적 친구를 많이 찾게 되는 것 같고, 가족간에는 같은 동성끼리 보다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알맞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이나 전공분야에서는 그 누구보다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교수를 찾음이 당연하다.

이와같이 문제의 성격이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상의하는 대상을 때로 달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카운슬러나 지도교수들은 학생들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조언지도를 항상 아끼지 말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학생지도연구소의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PR과 이용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어, 어려운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서슴치 않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자체의 노력이 절실히 요망된다.

(7) 신입생들의 과외활동에 관한 문제이다. 신입생들의 과외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보면,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약 1/3정도로서 약 2/3에 해당하는 64.6%의 학생들은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조사에 의해서 앞으로의 그룹활동의 범위를 보면 학술연구 (22.2%), 취미활동

(19.4%), 단순한 친목 (13.9%), 사회봉사 (12.5%), 음악활동 (11.1%) 등 다양한 그룹에 대한 참여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임시공부로 무겁게 짜여진 고등학교 생활에서 여유있는 대학생활로 바뀌어진 이들의 과외활동은 앞으로 매우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확실시 되나,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도방안 혹은 대책은 별로 대학당국이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 싶다.

대학생들의 과외활동 및 그룹활동을 중시하고 장려하고 있으면서도, 그 지도의 실제에 있어서는 외면하고 있는 실정은 시급히 시정되어야겠다. 이러한 과외활동이 효과적으로 지도 운용될 때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풍요하고 보람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도를 통하여 우리는 학생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8) 통학에 관한 문제로서, 현재 신입생의 18.1%가 하숙을 하고 있으며, 37.5%가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입생들만을 조사한 것이지만, 전학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더 많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어도 기숙사만 있다면, 현재의 하숙생을 상당히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취생도 상당수를 흡수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학생들을 안착시킴으로서 더욱 학업에 열중케 하고, 또한 학교당국으로서는 좀더 친근해지고 적극 지도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기숙사 시설의 신설을 요망하는 바이다.

(9) 학생들의 사회참여에 관한 것으로, 우리는 학생들의 사회참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고, 또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각 방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연구되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되는 바이나, 여기에서 나타난 사실을 보면 이들 약 2/3정도의 학생들이 찬성을 하고 있어, 사회참여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의 일면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 한번도 사회참여를 한 경험이 없는 점에서 참신한 신입 대학생들의 의견인 바, 이에 대한 설득과 상호이해, 정신계몽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10) 이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신입생들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절대 대다수 (88.2%)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극소수의 학생들만이 비관적, 절망적 견해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학생들의 현실참여에 대하여 우리는 공리적 차원에서 생각할수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대수의 학생들이 현실과 장래에 대하여 희망적,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실참여에 대하여 찬성을 하여 문제가 야기되는 것은, 학생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불만 즉 개인적, 학업적, 심리적, 경제적인 불만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기인한 불만에서 더욱 자극되어 악화되어 지는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러한 면에 대한 교찰의 필요성을 들어본다.

(11) 본 분석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학생은 절대 대다수인 94.4%이며, 전적으로 학비조달원을 아르바이트에 의뢰코저하는 학생은 22.7%, 잡비마련이 25.0%로서, 전체의 약 50%에 이르고 있는 바, 이들에게 학비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원조가 주어진다면 많은시간을 학비충당에 빼앗기지 않아도 될 것이며, 반면 그렇게 될 때 그들의 학업성적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일부는 학업에, 일부는 부직에 빼앗기는 현상하에서의 경쟁이란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많은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아르바이트를 가져야만 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적인 원조를 주기위하여서는 장학금 제도의 확대, 수업료면제의 기회확대, 새로운 형태의 부직을 모색, 제공해 주기위하여서는 무엇보다 학교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12) 본대학에 대한 요망사항을 여러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첫째, 학교당국에 대한 요망사항으로서 (1) 학구적 분위기 조성 (2) 운동장 정리와 체육시설 완비 및 오락 시설 완비의 순위이다. 이는 입시공부등으로 빈틈없이 짜여진 고등학교생활에서 여유있는 대학생살로 바뀌어진 이들이 자기전공에 대한 학술연구와 더불어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자신들의 내면적인 성장, 윤택한 대학생활을 꾸며나가려고 하는 솔직한 태도의 표명이라 본다.

둘째, 시설 및 부속기관에 대한 요망사항으로 가장 큰 문제는 대학캠퍼스확충 및 시설 확충인데, 시설부족에서 오는 여러가지의 불편점을 크게 의식하는 것 같다.

셋째, 교수에 대한 요망사항인데, 성의있는 지도와 충실한 강의 및 친숙한 유대강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은 교수로서의 임무로 당연한 성의있는 지도와 충실한 강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반면에, 처음맞는 교교생활과는 전혀 판이한 대학생활 적응문제, 진로문제등으로 허심탄회한 교수와의 개인적인 접촉의 대화가 무한히 요구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현재 개인적인 지도관계로 지도교수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더 많은 관심과 지도로서 그들과의 접촉의 기회를 마련해야 될 것이며, 이들이 특히 신입생들만큼 특별히 유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도계획이 학과 나름대로 마련되어 새로운 대학생활의 적응지도는 물론, 더 나아가 학생 개개인의 사고의 반력자가 될 수 있는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럼으로써,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교, 학과에 대한 긍지를 더욱 고취하는 결과가 되기도 한다.

끝으로 학생들의 활동문제에 대한 것으로 과외활동을 장려해 달라는 것이다. 논의 7에서 기술한 바와같이, 학교당국에서는 건전한 학생활동의 선택, 기회의 제공등을 통하여 그들의 대학생활이 보다 알차고 풍요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학교는 이들의 4년간 대학선계를 위하여, 더 나아가 발전적인 교육과업을 위하여 항상 현실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르는 새로운 시도책을 모색하여 대학교육의 이념을 꾸준히 실천해야 될 것이다.

## V. 결 론

신입생의 문제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학생들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또 많은 불만을 발견하게 된다.

학생들의 문제는 비록 그 영역에 따라 증가되기도 하고, 혹은 감소되기도 하지만, 아직도 해소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었으며, 또 특히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여러가지가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마냥 명랑하고 희망에 부풀어야 할 이들이 이렇게 벌써 신입초부터 많은 문제를 지녀야만 하는 신입생들에게 대학당국은 좀더 폭 넓은 지도와 노력으로 교육적 결함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자료가 이러한 교육적 결함을 시정보완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을 바라며, 조사정리된 결과가 크게 활용되어 다소나마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